

1.	봄길 정호승	2.	달밤 윤동주
	<p>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.</p>		<p>흐르는 달의 흰 물결을 밀쳐 여윈 나무 그림자를 밟으며 북망산을 향한 발걸음은 무거웁고 고독을 반려한 마음은 슬프기도 하다.</p> <p>누가 있어만 싶은 묘지엔 아무도 없고, 정적만이 군데군데 흰 물결에 폭 젖었다</p>
3.	낙화 이형기	4.	남(南)으로 창(窓)을 내겠소 김상용
	<p>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. 분분한 낙화... 결별이 이루어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꽂답게 죽는다.</p>		<p>남으로 창을 내겠소. 밭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.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.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.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. 왜 사냐건 웃지요.</p>

5.	6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동주</p> <p>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.</p> <p>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.</p> <p>내가 오래 기르든 여원 독수리야! 와서 뜯어 먹어라, 시름없이</p> <p>너는 살지고 나는 여워어야지, 그러나,</p> <p>거북이야!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.</p> <p>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피아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봉건</p> <p>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열 마리씩 스무 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.</p> <p>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 들었다.</p>